변화하는 새 시대에 적응하여야

노 영 한
(본회 전무이사)

얼마전 TV에서 황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방영되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생태계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일당을 주고 황소개구리를 잡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당초 황소개구리가 처음 수입될 때는 길러서 식용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

4~5일 전에 TV에서 팔당호 상류의 어민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도록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물에 걸리는 것은 블루길 등 외래어종 뿐이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강이나 호수에는 붕어, 잉어 등 토종 민물고기는 사라지고 힘센 외국어종이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할 때 따라 들어온 잡초들이 번식하여 목초지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환경오염이 심한 공단주변에는 토종풀들이 견디지 못해 퇴출되고 수입풀들만 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산골에 토종벌 보호지역을 정해 놓았지만 수입벌들이 토종벌을 몰아내고 있어 얼마 안있어 토종벌은 구경할 수도 없는 상태로 될 것이다.

이러한 먹이사슬이 끊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오는지는 환경단체들에 의해 잘 알려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목화농사가 퇴출되고 수입밀이 들어오면서 밀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뜻있는 분들이 모여 우리밀을 살려보자는 운동을 벌였지만 수입밀의 위력에 눌려 엄청난 부도를 내고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이 농협이 인수해서 살려보겠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밀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년전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할 때 깜짝 놀랐지만, 국내 쇠고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수입쇠고기가 차지하였었고, 금년에 와서 한우가격의 폭락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은 관세를 내리고 기금을 부과하지 말며 전문판매점 제도도 없애라고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분유도 마찬가지이다.

돼지고기도 지난해 후반기부터 수입이 개방되었으나 국내 돈가의 하락으로 아직은 국산 돼지들이 버티지만 저들의 집요한 공략에 국내 축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연구 보고서는 없다.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가축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다. 소비가 위축된 만큼 수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가축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다. 소비가 위축된 만큼 수출을 하거나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업자 증가, 소득의 감소, 국민들의 사회 분위기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이제는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생산비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출을 하거나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업자 증가, 소득의 감소, 국민들의 사회 분위기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이제는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생산비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수입 축산물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축산업을 지켜나가야 한다.

최소한의 자급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MF 사태에 의한 중산층의 몰락으로 축산물 소비가 오랜 기간 침체될 것이고,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축산 환경에서는 외래 축산물에 얼마나 견딜지는 의문이다. 경쟁국에 비해 2배나 비싼 사료비, 분뇨처리 문제, 방역문제, 양돈 넷워킹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발기금의 고갈과 축산업계의 낮은 수익률은 외부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게 되어 이제 축산업계에는 GSM-102 자금이나 유산스 등 외국의 자금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한국전력도, 포철도, 한국통신도, 담배인삼공사도, 은행도, 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도 외국기업에 팔려간다고 한다. 세계적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상륙하여 세계에서 가장 싼 축산물을 공급할 것이고 국내 모든 여건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한글과 컴퓨터가 국민들의 정성으로 살아남게 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엘리뇨 현상으로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못해 퇴출 당하는 토종 새들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수의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해가고 있는 것이 애처롭다.

변화하는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려면 우선 변화하는 현실을 올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IMF 이전 호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養豚